

먼 이국 땅에서의 한국인 뿌리찾기

재외 동포작가들의 작품활동 활발... 각종 국제 문학상 수상작도 국내 독자반응은 냉담

최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들의 국내 소개가 활발하다. 주로 일본과 영어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작품은 대체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표된 작품은 작가의 개인적 체험과 시대적 상황묘사가 적절히 맞물리면서 호응을 받고 있으며, 영어권에서 발표된 작품은 동양문화에 대한 서구인의 관심과 생경한 소재가 맞아 떨어지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계 작가의 작품은 우리의 또다른 자화상을 담고 있다. 최근 번역·소개된 몇몇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바다를 건너온 이들을 바라보는 국내 독자의 눈은 아직 무심한 듯하다.

재일(在日)의 거세된 삶

올해 2월 일본에서 출간된 《피와 뼈》(血と骨, 김석희 옮김, 자유포럼)는 석달만에 20만부 이상 팔렸다. 오사카에서 제주도 출신 부모 사이에 태어난 저자 양석일(梁石日, 53)은 이 소설로 일본 문단을 강타했다. 그는 이미 93년에 작품 《택시 광조곡》이 영화 〈달은 어디에 떠 있나〉로 제작되어 제44회 베를린 영화제 'NETPAC·마이니치 영화콩쿠르·일본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30년대 한국인 밀집지역인 오사카를 중심 무대로 상정한 세권짜리 소설 《피와 뼈》는 지난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50여년 삶의 궤적을 더듬고 있다. 어묵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 '김준평'은 보통 사람을 압도하는 거구로 야쿠자들조차 두려워할 만큼 포악한 인물이다. 노름꾼에 싸움질을 해대는 그는 자신을 삶을 짓밟으며 살아간다. 동포들이 삶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악행은 계속된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 가족을 외면하는 반인륜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경제적 성공을 거두지만 중풍으로 쓰러진 그는 마지막 탈출구로 조총련을 택한다. 재산을 조총련에 몽땅 기부한 뒤에 마지막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를 데리고 북송선을 탄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도쿄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아들 '성환'에게 그의 죽음이 전해지는 것

최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들의 국내 소개가

활발하다. 일본과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작품은 대체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가의 개인적 체험과

시대적 상황묘사, 동양문화의

생경한 소재와 함께 서구인의

관심을 모이지만 정작 국내 독자의

반응은 무심한 편이다.

으로 막을 내린다.

김준평의 일대기는 엉켜처럼 살아온 재일교포 1세대의 애환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도쿄에서 10년 동안 택시운전을 했던 저자가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한편 기존의 재일동포 작가들이 주로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루었다면 그의 작품은 그 굴레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대표적 대중문학상인 '제11회 야마모토 슈고로 상'을 수상한 것도 그 점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주목받는 또다른 작가는 할머니가 한국인인 사기사와 메구루(鷺沢 萌, 31)이다. 그녀는 18세 때 문예춘추사에서 주관하는 〈문학계 신인상〉을 최연소로 수상했고, 대학 재학시절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올라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대표작을 묶은 중편집 《진짜 여름》(ほんとうの夏, 김석희 옮김, 작가정신) 속의 〈진짜 여름〉은 "재일교포 3세인 한 대학생의 내면을 훌륭히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재일교포 3세는 어느날 우연히 차량접촉 사고로 일본인 애인과 3일간의 짧은 이별을 한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명확히 차별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에 대한 고민은 불거진다. 가슴을 찢는 듯하게 훑고 지나가는 그 무엇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백하게 그려진 〈진짜 여름〉은 많은 독자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재일 교포작가 중에 유미리(柳美里, 31)를



윗줄 왼쪽부터
양석일·미라 스타우트·
노라 옥자 켈러·
이창래·유미리.

빼놓을 수 없다. 한양대 윤상인 교수는 그녀를 "재일(在日)이라는 '거세된 삶의 조건' 하에서 문학의 길에 입문한" 것(본지 제233호 참조)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녀의 최근작은 더이상 교포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민사회의 갈등 통해 민족성 확인

태평양 건너 영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는 미라 스타우트(Mira Stout, 39)이다. 일제 식민지하부터 3대에 걸친 한 가족사의 비극을 그린 《천 그루의 밤나무》(One Thousand Chestnut Trees, 최인자 옮김, 문학세계사)는 영국에서 이미 7만부가 팔렸고, 7개 언어권에서 번역되었다. 영미문단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이 작품은 '국제도서협회(IMPAC)에서 주관하는 99년 '국제문학상(NLA)' 후보로 선정되었다.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 '안나'는 어머니의 세계를 완전히 외면하며 자란다. 문득 중대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준 '천 그루의 밤나무'를 상기한다. 삼촌과의 만남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고, 결국 한국을 찾게 된다.

어머니의 집안 민씨 가문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동안 그녀는 일제의 침탈로 몰락한

외증조할아버지와 가족, 해방을 맞아 정치에 투신하여 풍족한 삶을 누렸고, 전쟁으로 온순생활을 했던 외할아버지의 삶, 바이올린을 사랑하는 소녀에서 미국 공군기지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어머니의 부침 많은 인생 여정을 더듬는다. 결국 그의 시선은 80년대 한국의 모습에 머문다. 88올림픽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가족사를 복원하며 '천 그루의 밤나무'가 심어진 절을 찾아해매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어머니의 증언과 사료를 바탕으로 집필한 소설은 해방 전후의 상황과 문화, 생활의 자질구레한 집기, 음식 이름, 아이들의 노리까지 매우 세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재현한 것이 서구 독자를 매료시킨 것이다.

《중군위안부》(Comfort Woman, 밀알, 박은미 옮김)의 노라 옥자 켈러(Nora Okja Keller, 34)는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95년에 단편소설 〈모국어〉를 발표하여 '푸쉬카트 문학상'을 수상했던 그녀는 93년 하와이 대학에서 열린 인권집회에서 일제시대 위안부로 끌려가 4년 동안 성노예로 살았던 한 할머니의 절규를 듣게 된 것이 집필동기.

우리의 피맺힌 과거를 기억하는가

요시미 요시아키 지음 《일본군 군대위안부》를 읽고

변영주 · 영화감독

소설은 테마는 두가지다. 하나는 종군위안부로 살았던 어머니의 한스런 삶이요, 다른 하나는 그녀의 딸 '베카'가 겪는 고통이다. 종군위안부 생활을 하던 '아키코(한국명 김순효)'는 가까스로 탈출하여 선교사와 결혼하지만 불행한 삶을 산다. '굿'으로 위안을 삼는 그녀에게 '베카'는 또다른 삶의 시련으로 다가온다. 나름대로 힘겨운 삶을 살던 '베카'는 어머니가 죽은 뒤에야 그녀의 비극적인 삶을 이해하게 된다. '아키코'의 시련은 일제치하에서 고통받은 조선의 모든 어머니의 아픔이며, '베카'의 비극은 한국사의 쟁쟁한 증언인 것이다. 이 작품은 최근 '전미도서상(ABA)' 픽션부문을 수상했다.

이민사회의 갈등을 통해 민족성 확인이라는 주제를 심도있게 다룬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 현준만 옮김, 미래사)로 '헤밍웨이 문학상'을 수상한 이창래(31) 역시 주목받는 작가이다. 그는 현재 '정신대 문제'를 다룬 작품을 쓰고 있는 중이다. 한편 7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전통적 가부장제의 모순을 파헤친 《장마》(The Long Season of Rain, 현재 번역 중)로 '국제도서상(NBA)' 후보에 올랐던 헬렌 김(Helen Kim)도 성장 가능성 있는 작가로 꼽힌다.

국내 독자들은 침묵

지금까지 외국에서 반향을 일으킨 교포작가의 작품은 어김없이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반향은 그리 크지 않다. 밀알출판사의 현기범 편집장은 "보이지 않는 요소, 즉 문화와 정서적 차이"를 원인으로 꼽았다. 자유포럼의 김미숙 편집장은 "한국계 작가의 작품이지만 아직 국내적 정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작가 스스로 한국적 상황에 냉소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이 '문학상'을 수상해 오히려 국내 독자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온다는 견해도 있다. 교포작가의 작품을 우리의 작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국내 독자의 냉담한 반응은 곱씹게 된다.

— 오완진 기자

매주 수요일 정오가 되면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거리는 몇몇의 할머니들과 플랭카드를 든 청년들로 들쭉이게 된다. 이제 7년을 넘어서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는 몇년 전 '고베 대지진'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한 회를 쉬었을 뿐, 단 한주도 거른 적이 없다. 물론 그 7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에 응답을 한 대사관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대사관 앞 거리에 서서 할머니들의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 거리를 걸어가며 결눈질로 힐끔힐끔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동자가 참으로 아속하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한국 사람 누구든지, 정신대나 혹은 일본군 군대위안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묻게 되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일본군 군대위안부란 무엇인다고.

우리는 그 어떤 역사의 진실도 교과서를 통해 배운 적이 없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이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교육하라'는 구호를 들을 때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이 사실은 거의 기

불행히도 한국에서 일본군 군대위안부의 실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 전쟁범죄의 책임을 거론하며 일본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왜 우리는 유대인에 비해 우리의 피맺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까. 이 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반문한 것은 바로 이런 한국의 현실이었다.

록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런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8월 15일을 전후로 의무감에 사로잡혀 겨우 기억해 내곤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도 일본군 군대위안부의 실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여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여 일본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왜 우리는 유대인에 비해 우리의 피맺힌 과거를 기억하고 있지 못할까? 왜 교육하고 있지 않을까?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저서 《일본군 군대위안부》(이규태 옮김)를 읽으며 끊임없이 나에게 반문한 것은 바로 이런 한국의 현실이었다. 책 제목의 냉정한 분위기처럼 이 책은 감정과 느낌으로 서술한 책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저자의 집요함으로 완성된 책이다. 일본군 군대위안부문제에 관한 책임이 당시의 군부와 정부에 일차적으로 있다는 것과 단



변영주씨.

순한 사회와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국제법 위반과 전쟁 범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록한 이 책은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기억만이 유일한 증거인 이 문제의 현실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령이었던 인도네시아를 침범한 일본군이 설치한 스마란 위안소를 둘러싼 전범재판의 상세한 기록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 군대위안부와 관련된 유일한 전범재판 기록인 <스마란 위안소 사건 관련 법정기록>은 네덜란드 군사법정을 통해 당시 일본 육군 중장 1인을 포함하여(판결은 사형) 13인의 일본군이 부녀자 강제매춘을 위해 연행하고, 강제매춘을 강요하고, 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실형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유럽의 여성들에 대한 피해는 이렇듯 전범재판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배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일본군 군대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대부분을 이루는 아시아 여성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는 아직도 그 책임의 규명과 사죄, 배상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고, 한국정부와 많은 한국사람들은 이제 이런 문제는 잊자고 이야기한다. 바로 이 책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

소화/B6/272면/4500원

